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성금 기탁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가 17일 평창군청 부군수 집무실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건설 일감 없는데 업체 수는 크게 늘어

도내 본사 1년 새 158곳 증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건설업계가 극심한 '일감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건설업체 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건설업계는 업체 간 '과당경쟁'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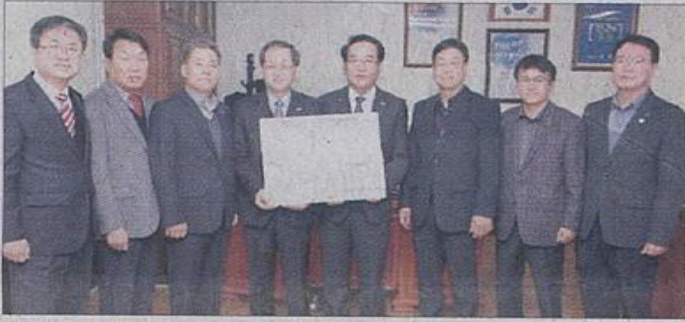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 수는 1년

전보다 158개 늘어난 3,871개로 집계됐다. 지역 건설업계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추진된 점을 건설업체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제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 도내 건설 일감이 늘어난 업체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 대한건설협회 도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 1~11월 도내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을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1% 감소한 1조2,473억538만원에 그쳤다. 전문건설업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주처가 공고한 공공·민간부문 발주물량은 344건에 불과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한정된 일감을 두고 건설업체 간 지나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지자체의 새로운 일감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건설협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오인철 대한
건설협회 강원도회장과 임직원들은 17일 평창군
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늘어나는 건설업체, 7억원 공사 경쟁률 355대 1

도내 업체수 전년 대비 158개 증가
공공공사 입찰액 전년비 30% 감소
“출혈경쟁 심화 지역건설 부양 필요”

강원 건설업체가 도미노 부도사태를 우려할 정도로 과포화상태다. 건설업체 수는 급증한 반면 시설공사는 감소하면서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건설업조사(2017년 기준)결과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체 수는 7만 2376개로 전년(6만9508개)보다 2868개(4.1%) 증가, 10년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강원지역 건설업체는 3871개로 전년(3713개)보다 158개(4.3%)가 늘면서 전국평균을 넘어서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일감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지역건설사들의 의존도가 높은 공공기관 발주 시설공사가 큰폭으로 줄었다. 올들어 12월 셋째주까지 조달청을 통해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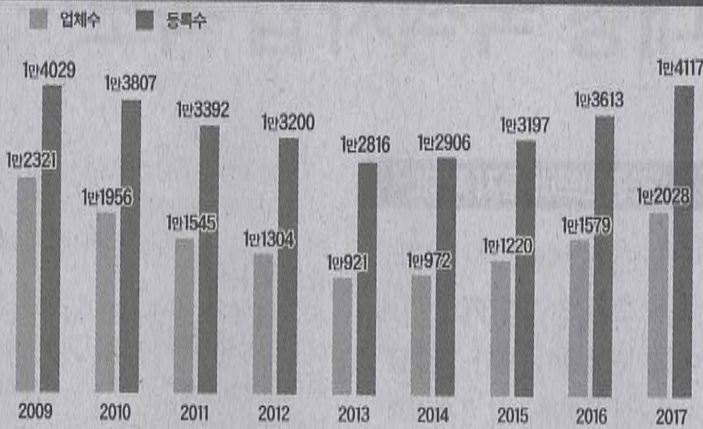
된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입찰은 총 76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조872억원)보다 3259억원(29.9%) 줄었다.

이같은 여파로 도내 건설업체가 출혈경쟁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최근 태백시가 발주한 6억여원대 전시 시설물공사의 입찰경쟁률은 69대 1로 집계됐다. 또 원주시가 최근 발주한 7억여원의 양수장 설치공사 입찰 경쟁률도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경쟁률만 355대 1이었다. 내년 지역 건설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세

확대로 올해(-2.8%)에 이어 마이너스(-2.0%)가 계속될 전망이다. 그나마 SOC 등 투자 확대로 전국적인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형 민간 및 국책 사업이 강원도는 비껴갈 공산이 크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등 공공 공사발주량 확대 기대감에 도내 건설업체 수가 급증했는데 올들어 건설일감 감소로 업체간 출혈경쟁이 심각하다”며 “일자리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지역 건설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신관호

인도별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 (단위: 개사)



건설협회, 2017 민간건설백서

토목공사업체, 10곳 중 3곳 사라졌다

(2008-2017년)

지난 10년간 토목공사업체가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합건설회사의 증가세와 달리 토목업체만 줄어드는 것은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소와 공공공사의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7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발간한 '2017 민간건설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합건설업체 수는 1만2028개사로, 1년 전보다 449개 증가했다. 1146개사가 새로 등록한 반면 642개사가 폐업(말소 포함)했다. 폐업업체 대비 신규업체 비율이 80% 가까이 치솟았다. 2014

년을 기준으로 신규업체가 폐업업체를 앞질렀다.

업종별로는 토목건축(토건) 및 토목업체 수가 줄었고, 건축업체가 늘었다.

토목공사업체는 2517개로 10년 전인 2008년 3626개사보다 3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토건업체는 3989개에서 3163개로 20.7% 줄었다. 건협 관계자는 "10년 전만 해도 SOC 예산과 공공 인프라 투자가 활발했다"며 "토건·토목업체 감소세는 이제 공공토목공사만으로는 건설업체 경영이 쉽지 않은 시장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건축공사업체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2016년 6054개에서 지난해 말 6583개사로 8.7% 늘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주택경기 호황과 소규모 건축에 대한 시공자 제한 강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간건설백서는 건설정책 동향과 건설 통계 등 건설산업 관련 주요자료를 집성한 것이다. 건협은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1988년부터 건설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백서로 지난해 주요 건설정책 및 제도 동향과 건설업체 현황, 공사실적, 건설 통계를 비롯해 건설경기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

SOC·公共투자 감소 영향
3626곳에서 2517곳으로

종합건설업체 1만2028곳
1146곳 등록, 642곳 폐업

작년 주택경기 호황 영향에
건축공사업체는 증가세 뚜렷

다. 주요내용은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건설정책 동향 △국내건설 공사 실적 동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건설업 경영관리 △해외건설 수주현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록으로 국내 건설 일지와 주요 건설 통계자료가 있다.

건협 관계자는 "민간건설백서가 향후 건설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과거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건설백서는 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김태형기자 kth@